

거래시간 늘린 애프터마켓 1.1조 거래… 外人 참여는 6.7%

14~18일 일평균 5485만주 거래
정규장 거래대금의 4.5% 추가
개인 비중 90.4%로 거래 주도
外人 유입 효과는 아직 제한적
변동성 완화 속 수급전환 여부 주목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출범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9월 들어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애프터마켓 거래대금에서도 개인 비중이 90%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변동성 진정과 개인 매도 전환 등 과거 외국인 매수 국면에서 나타났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 17조8895억원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조6646억원을 순매도했다. 사실상 9월 코스피를 지탱한 것은 기관과 기타법인으로 각각 5조원, 24조원 넘게 사들였다.

다만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로 지난 14일부터 운영된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에 일평균 1조1000억원의 거래대금이 몰리는 등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선호가 크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애프터마켓이 운영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5485만주, 거래대금은 1조1467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정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5433억원으로, 정규장 거래대금의 4.5%가량이 추가된 셈이다.

거래대금 기준 투자자 비중은 개인이 90.4%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6.7%, 기관은 2.6%로 집계되면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효과

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초 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등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거래시간 연장으로 접근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주체로 꼽힌 외국인의 애프터마켓 수급을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장 대비 순매수·순매

도 규모가 1~2%가량 늘거나 줄어드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과거 외국인 대량 매수 사례에서 발견되는 조건은 크게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 고점 후 하락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약화 ▲새로운 이벤트 등장 등을 꼽았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보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개인의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매수 근거가 더해졌을 때 두드러졌다”며 “이제 주목할 것은 매수를 자극할 재료이며, 10월 초까지 미중 정상회담, 마이크론 2026회계연도 4분기 실적,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등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고 짚었다. VKOSPI 지수는 이미 7월 고점 89.3에서 40 초반 수준으로 내려왔고, 개인 투자자도

이달 들어 순매도로 전환했다.

메모리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성장 전망이 시장 눈높이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도 변수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메모리 가격(P) 상승뿐 아니라 출하량(Q) 확대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다”며 “가격과 함께 실제 수요와 출하도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익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기대가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이란 전쟁이 추가로 격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중동전쟁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유가와 금리 불안이 시장은 물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급의 키가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중동전쟁의 행방이 외국인 수급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원매자 50곳 두드린 홈플러스 재매각 성패 가를 ‘정상화 비용’

본사·온라인·대형마트 67곳 매각
통매각 원칙 속 분리매각도 검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잠재 원매자 50여 곳에 인수의향을 타진하며 재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와 본사·온라인 사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원매자의 자금력과 사업 전략에 따라 자산이나 사업부를 나눠 파는 분리매각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상품 공급망 복구와 운전자금 수월, 이탈한 테넌트 회복 등 인수 이후 정상화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실제 원매자 확보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최근 국내외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잠재 원매자 50여 곳에 티저레터를 발송했다. 매각 기본 대상은 본사와 온라인 사업 부문, 현재 영업 중인 대형마트 67개 점포다. 폐점 점포 중 회사가 소유한 19곳의 자가 부동산은 별도로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재매각의 핵심은 ‘거래 성사’를 위

한 유연한 매각 구조다.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 영업망과 물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67개 점포 통매각이지만,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할 원매자를 찾기 어렵다면 자금력과 사업 전략에 맞춰 자산이나 사업부를 쪼개 파는 분리매각 가능성도 열어뒀다. 과거 매각 실패 경험을 거치며 매도자가 정한 틀을 고집하기보다 실제 인수 의지를 지닌 원매자에 맞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홈플러스는 고정비 절감과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오는 30일부로 문화센터 운영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운영자금 고갈로 인한 임시휴업 이후 이어진 무기한 휴업을 끝내 사업 철수로 매듭지은 것이다. 문화센터 인력은 면담을 거쳐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며, 잔여 수강료 환불도 진행 중이다.

실제 매각 완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에서는 단순 인수 가격보다 인수 이후 투입될 정상화 비용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SK하이닉스, HBF·PIM 등 차세대 메모리 공개

>> 1면 ‘애플, AI서버 개발…’서 계속

고성능 낸드를 3차원으로 집적한 ‘3N AND-O’와 CXL 기반 메모리 등 AI 시스템의 데이터 이동 효율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에이전트 AI 확산과 AI 인프라 투자에 따라 서버 D램과 기업용 SSD(eSSD), HB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HBM4와 DDR5, SOCAMM2 등 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AI 인프라 서밋 2026’에서 고대역폭 플래시(HBF)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SALT-KV 등 추론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담당(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2027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

사업 목적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사업 내용 중소기업 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판로개척 과제(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구분	1단계(사전준비)	2단계(현지파견)	3단계(사후관리)
핵심과제	해외마케팅·홍보, 바이어 B2B 매칭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파견	바이어 국내 초청, 팸투어, 네트워킹 등
연계과제	교육·컨설팅, 마케팅·홍보, 프로모션, 부대행사 등 자율 기획		

※ 핵심과제 중심 단계별 연계과제 기획 다각화 시 선정 우대

사업 기간 2027년 1월 ~ 2028년 3월

사업 규모 00개 내외 * 선정규모는 추후 확정 예정

신청 자격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 수출 유관기관 등

지원분야·내용 일반(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수출컨소시엄 과제

지원 항목 전시·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공동경비 지원 * 추진단계별 70% 이내 지원

선정 및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및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사업 선정

접수 기간 2026. 9. 16(수) ~ 10. 7(수) 18:00까지

신청 방법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모집공고 참조(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공지사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글로벌성장팀 02) 2124-3291~4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